

# 축산정보

## 축협, 배합사료 가격 평균 5.1% 인하

### -양돈용은 4%, 민간업체들도 3~6% 인하

축협은 최근 환율의 안정과 국제 곡물가격의 하락세로 지난 4월 1일부터 배합사료값을 평균 5.1% 인하했다. 양돈용 배합사료는 평균 4% 인하했다.

우성사료도 지난 4월 3일부터 배합사료 가격을 평균 3~6% 인하한데 이어, 퓨리나코리아·제일제당·대한제당·신동방·대상 등 16개 민간사료회사들도 4월 13일을 전후해 사료가격을 평균 4.2% 인하했다. 축협 관계자는 “최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천3백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사료값을 40% 올릴때의 환율 1천4백80원 보다 1백원이나 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가격인하는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료값 인하조치는 원료 곡물값의 하락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환율 안정시에는 다른 업체에서도 사료값 인하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 경우 지난해 말 톤당 140달러 보다 7.1% 떨어진 13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대두박도 20% 가량 가격이 떨어졌다.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에 송찬원 축협회장 선출



송찬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30일 서울 역삼동 소재 중식당 도원에서 98년 제 1차 회의를 갖고 송찬원 축협중앙회장을 새 회장에 추대했다.

본회와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 등 축산 생산자 단체장들은 이에 앞서 모임을 갖고 축산업계의 최대 숙원인 자조금제도 입법과 마사회의 농림부 이관을 조속히 관철하기 위하여 자조금제도 입법에 소극적이었던 축협중앙회장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에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신임 송찬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자조금제도 입법과 마사회 농림부 이관 등 축산업계의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캐나다 수출신용 2억9백만달러 사용 합의

### -돼지고기 2천3백만달러어치 수입될 듯

정부는 지난 3월 30일 농산물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DC)를 통해 2억9백만 캐나다 달러(미화 1억4천6백만 달러)를 수출신용으로 사용하기로 캐나다 측과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금의 품목별 사용규모는 밀 2천8백만 캐나다 달러, 사료원료 등 7천7백만 캐나다 달러(알팔파 2천5백만 캐나다 달러, 유채박 2천만 캐나다 달러, 귀리 1백만 캐나다 달러, 사료용 보리와 우지 각각 5백만 캐나다 달러, 맥주맥아와 맥주보리 1천1백만 캐나다 달러), 원피 7천5백만 캐나다 달러, 육류 3천5백만 캐나다 달러(돼지고기 2천3백만 캐나다 달러, 쇠고기 1천2백만 캐나다 달러)등이다.

이 자금의 금리는 리보금리에 0.25~1%를 합친 것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2년까지이며 EDC로부터 보증을 받기 위한 보험료는 이 자금의 상환기간이 2년일 경우 사용금액의 2.2%로 선납을 해야 한다.

## 축산발전기금 대출금리 현행 5% 계속 유지

### -농특회계, 축산 경영자금은 4월 15일부터 6.5% 적용

농림부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와 농·축산 경영자금의 금리를 지난 4월 15일부터 연리 5%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농가부채 경감차원에서 축산발전기금,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 등에서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현행 금리인 3.0~8.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가 돼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축산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의 금리가 적용된다. 반면 축산경영자금은 현행 5%에서 6.5%로 금리가 상향 조정되고, 농특회계에서 지원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1.5% 인상된 6.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농림부는 축발기금 등의 경우 농축산인의 어려움과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없는 점을 감안 금리를 인상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돼지 사육두수 7백44만두로 사상 최고 기록

### -돼지 사육두수 전년 동기대비 99만두 증가 -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 줄어

돼지 사육두수가 7백44만두를 돌파했다. 농림부가 집계한 가축생산 통계결과에 의하면, 3월 1일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7백44만두로 전분기 대비 4.8%(34만4천두)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사육두수인 6백45만두에 비해 무려 15.3%(99만두)나 늘어난 것이다. 이같이 돼지 사육두수가 늘어난 것은 돼지고기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양돈경기가 호황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양돈농가들이 사육두수를 꾸준히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의아하고 있다.

지난 12월 사료값 급등시 전국 도처에서 돼지 방매현상과 모돈 도태가 잇달았고 지난 겨울철에는 설사병 등으로 자돈 폐사두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3월에는 사육두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료 생산량이다. 2월말 현재 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20,513톤) 줄어든 360,559톤으로 나타났다.

전년 3월 1일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6백45만두였으며, 2월 사료 생산량은 38만톤이었다.

사료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사육두수는 1백만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돼지 사육농가수는 전분기 대비 변동없이 2만7천 농가로 집계됐다.

## “자가배합용 원료에 석회석 혼합 시 제조원가 10% 상승”

### -국제경쟁력 제고 역행 처사, 관련 법규 재개정해야

농림부가 자가배합사료 제조용으로 공급되는 주요 원료에 석회석을 섞어 공급하기로 한데 대해 양축농가들은 석회석 등을 섞을 경우 쓸데없는 제조비용이 발생, 결국 자가배합을 할 수 없다며 이 조항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17일 “자가배합용 사료원료의 합리적인 공급과 양돈농가의 이용방안” 양돈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자가배합사료 제조용으로 공급하는 옥수수 등 주요 원료가 식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알곡을 파쇄하고 석회석이나 어분 등을 섞어 공급하는 것은 자가배합 사료용 원료 구입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가배합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입사료 사후관리요령”에 의하면, 자가배합사료용으로 공급되는 원료에 대하여 식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알곡을 파쇄하고 어분이나 석회석 등을 혼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가배합사료 원료를 공급받는 농가는 알곡 파쇄비용 등 가공비와 운임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알곡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약 10%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가배합사료의 제조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옥수수와 수수 등 식용전용 우려품목을 알곡자체로 공급하고, 농가가 이를 식용으로 전용시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원료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수입

사료 사후 관리 요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 권동태 사료계장은 “자가배합사료 확대를 위해 양축농가 80개소에 1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분쇄기 및 배합기를 지원하며, 안산과 김제 등 축협사료공장 2개소에 알곡 공급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우성농역, 한냉·복원 등서 지육반입 추진

### -우성농역, 지난 3월 26부터 도축 중단

지난 3월 30일부터 도축을 중단키로 했던 우성농역은 당초 계획을 앞당겨 3월 26일부터 도축을 중단했다. 27일부터는 지육을 외부에서 반입, 경매만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나 거래물량은 예년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우성농역은 도축작업을 중단한 대신 수입육과 지육 경매만을 실시기로 함에 따라 한냉과 복원 등에서 지육 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 지육은 한냉 중부공장에서 하루 50두 안팎을, 돼지 지육은 복원 등에서 하루 1백여두 내외를 반입, 경매할 방침이라고 우성농역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마장동에 돼지 지육 공급을 위해 모 대기업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 돼지설사병 치료제 생산용 면역계란 개발

돼지의 유행성 설사병과 대장균 감염증 치료제 생산에 필요한 면역계란이 개발돼 설사병 치료제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면역계란에서 추출한 물질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바이러스성 질병도 치료할 수 있으며,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문제가 해소돼 유

해성 잔류물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 수의과학연구소는 지난 3월 18일 돼지유행성 설사병 백신과 대장균 백신을 닭에 주사해 생산된 계란의 노른자 위에서 항체만을 추출한 뒤 동결 건조시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면역계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수과연은 이 같은 방법으로 만든 고면역계란의 노른자 추출물을 PED에 걸린 돼지에 2~3회 먹인 결과 93.8%의 치료효과를 보았으며, 대장균 감염증에 걸린 돼지에서도 95.8%의 치료효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 ■ 냉동 돼지고기 일본수출 “금감”

효조를 보이던 냉동 돼지고기 수출이 3월 들어 급감하고 있다. 국립동물검역소에 의하면 3월중 대일 수출량은 냉장육과 냉동육을 더해 5,515톤으로 지난 2월에 비해 700여톤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의 계속된 경기침체와 특히 냉동돼지고기의 재고물량 증가가 주요인으로 풀이됐다.

최근엔 일본 수입업자들이 원화 가치 하락과 소비부진 등을 이유로 수출 단가를 지난해 말 6백40엔(1Kg 기준)에서 4백~4백40엔으로 내릴것을 요구하고 있어 냉동돼지고기 수출이 사실상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육류유통 전문가들은 국산 냉동 돼지고기 수출 감소의 주 원인은 미국 등에 비해 품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농가가 비육후기 사료를 먹여 물돼지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규격돼지 사육 요령 교육을 △육가공수출업체에는 시설자금 지원과 더불어 가공기술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 농림부, 축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가격인하

축산물종합처리장(LPC) 개장에 따른 유통단계 축소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각종 축산물 값의 거품이 빠지게 됐다.

지난 4월 6일 농림부에 따르면 2001년 축산물시장 개방에 대비,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상반기 중 3개 대형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개장하는 등 올해 4개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금산산업단지에 안성축산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이 개장 되었으며, 오는 6월에는 경북 군위에 동아축산과 전북 익산에 (주)부천, 10월에는 경기도 연천에 진승산업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이 각각 개장된다.

안성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경우 대지 1만4천7백여평에 축산발전기금 1백21억원 등 모두 3백4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도축장과 3개 육가공장, 비축창고, 정화시설등을 갖추고 하루에 소 1백10마리와 돼지 2천2백50마리를 각각 도축하며 한우는 '안성맞춤', 돼지고기는 '바른터', '마시텔', '크린포크'라는 상표로 판매된다.

이들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모두 개장되면 축산물의 유통단계가 현재의 생산농가 - 가축시장 - 생산지 수입상 - 도축장 - 소비지 수집상 - 식육업소 - 소비자 등에서 생산자 - 축산물종합처리장- 직판장 또는 가맹점-소비자로 줄어들게 된다.

## ■ 농림부, 돼지고기 수출확대 위해 경영자금 지원

-A·B등급 돼지 출하농가에 품질개선비 80억원 지원 등

농림부에서는 금년도 수출목표 7만톤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업체에 대한 돼지 구매자금을 지난

해보다 35억원을 증액한 384억원을 지원하였고, A·B등급의 돼지 출하농가에 80억원의 품질개선비를 지원하며, 수출 부가가치가 큰 냉장육 수출확대를 위하여 5개소에 28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축산경영자금도 규격돈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 출하실적에 비례하여 두당 2만원 선에서 자금을 지원하되 일반경영자금과 차별화하여 총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지난 4월 9일 개장된 안성의 축산물종합처리장과 같은 시설을 10개소 만들어 이곳을 중심으로 계열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높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농림부,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국내 최초 인증

### -성림축산, 유학종축

농림부(수의과학연구소)는 지난 4월 10일 성림축산(대표 : 백동제)과 유학종축(대표 : 성낙희)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으로 인증하기로 하였다. 상기 종돈장은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96. 6월)에 따라 '97. 1월부터 1년 동안 돼지 오제스키병, 위축성 비염, 부루세라병 등 7종의 전염병 모두가 발생되지 않아 1등급 우수종돈장으로 확정되었다.

우수종돈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은 수의과학연구소장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부착할 수 있고, 아울러 농장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어 양돈농가로부터 대한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수종돈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매 6개월마다 검사대상 전염병의 발생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을 취소하거나 등급을 변경 조정하게 된다.

## 제주산 돼지고기 대일 수출용 육가공공장 설립

제주양돈축협이 양돈농가가 생산한 돼지고기를 일본에 가공 수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육가공공장을 설립한다.

제주양돈축협은 북제주군 애월읍에 2천3백평의 육가공공장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하루 최대 5백마리의 돼지를 육가공할 수 있는 규모로 공장을 건립키로 하고 설계에 들어갔다고 지난 4월 4일 밝혔다.

이 공장은 상품가치가 높은 냉장육 상태로 수출하기 위해 모든 시설이 냉장육 가공 방식으로 시설되며 일부 가공제품 라인도 갖춰 햄, 소시지 등 돈육 제품도 생산할 계획이다.

제주양돈축협 관계자는 "돼지 생산량에 비해 현재 도내 육가공 공장시설 처리능력이 부족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새로 육가공 공장이 시설되면 돼지고기 가공능력이 신장돼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육류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농림부, "남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으로 명칭 통일

농림부는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은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원료인 남은 음식물이 사료원료로서 품질면이나 위생·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나 이제까지 "음식물 쓰레기" 또는 "음식물 찌꺼기"라고 사용하고 있어 이를 사료로 사용하는 농가나, 사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축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養豚**